韓國의 資源開發에 관한 硏究

——人口問題를 中心으로——

宋 鍾 克*

Ⅰ. 序 言
Ⅱ. 資源問題
Ⅲ. 人口와 資源問題
Ⅳ. 韓國의 資源問題
Ⅴ. 結 語

Ⅰ. 序 言

人口가 過剩함으로 말미암아 食糧, 資源이 不足되는 경우의 對策에는 人口를 減少시키거나 食糧, 資源을 增加시키는 方法의 兩者가 있다. 한 國家가 이러한 難關에 逢着한 경우 이것에 萎縮되어서 가능한 限 安易하며 소극적인 方途를 擇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困難이 隨伴하더라도 이것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對策을 강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民族의 盛衰와 심대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韓國은 過去 日帝의 食糧 내지 原料植民地로서 收奪되었으며 解放後에는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國土가 兩斷되어서 더욱 협소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海外貿易은 여러가지 形便으로 低調하여서 그 伸張은 容易하지 않으며 또한 大量의 海外移民으로 人口壓力을 緩和하는 方法도 行하기 어려운 事情에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人口는 약간 減退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急增을 繼續하고 있다. 그 必然의 結果로서 生活水準이 向上昇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社會諸般에 걸치어 難問題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人口 및 食糧, 資源과 生活水準의 問題는 安保問題와 아울러 큰 試練으로써 이것을 소극적인 人口制限만으로 解決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食糧, 資源의 開發에 의하여 解決하는 가는 國家將來에 있어서 重大한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經營學科 敎授

그런데 韓國의 人口, 資源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는가의 論議를 且置하고 그 根本對策은 國內事情에만 限하지 않고 世界實情을 考慮한 위에 行하지 않으면 確立되기 어려운 것이며 平和問題와 같이 國際協力의 立場에서 解決되지 않고서는 그 徹底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世界라는 廣範한 視野에서 人口, 資源問題를 우선 一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國民經濟에 있어서 人口와 다른 生產要素와는 均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必須要件이라면 此際에 그 不均衡이 어느 쪽에서 야기되었는가를 無視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經濟와 人口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好況期에는 勞動力이 不足하며 不況期에는 失業者가 發生한다는 不均衡은 景氣循環이라는 經濟機能의 結果로서 人口에는 責任이 없으며 出生과 死亡이 程度以上으로 增減됨으로 因하여 失業者가 發生하거나 勞動力이 不足되는 경우 그 原因은 確實히 人口에 있다. 이와 같이 資源의 不足과 같은 것도 對人口關係에 있어서는 人口過剩과 一致함으로 말미암아 그 結果는 明確히 人口問題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人口問題는 一般的으로 人口와 經濟와의 不均衡을 意味하는 것이나 嚴密하게는 이러한 不均衡은 經濟機能에서가 아니라 構造의 變化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그 是正은 經濟의 機能이 아니라 構造를 改善하는 것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서 여기에 이것을 基調로 하였다.

韓國의 自立的인 經濟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그 自體가 生產力과 資源의 基盤위에 立脚하여 營爲되면서 國民生活의 基本需要를 充足시키는 同時에 國際收支가 均衡되어야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資本의 缺乏, 生產力의 未發達, 技術水準의 低劣,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國內資源의 未開發 내지 不足을 더욱 切實하게 하고 있으며 그 打開策으로서의 經濟開發事業의 進展은 오히려 財源 및 그 開發資材는 勿論 開發된 生產力을 뒷받침할 原料, 資源까지도 海外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累積的인 輸入需要의 增大는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에서 構造的으로 造成되어온 對外依存的인 特性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여 가고 있다.

이것은 本格的인 工業化過程에 있는 開發途上 國家들이 共通的으로 逢着하게 되는 課題이기도 하나 그 增大되는 原料需要와 그것에 對應하는 資源開發의 低水準에서 나타나는 矛盾을 克服하기 위하여 國內에 賦存되고 있는 自然資源의 基盤이 어느 정도의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가를 綿密한 調査를 通하여 位置와 量과 質 그리고 屬性과 形態로 類別되어야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資源의 開發 및 活用을 爲한 方法上의 硏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다른 편으로는 生產構造 그 自體가 開發過程에 있어서나 循環過程에 있어서 最大限으로 開發可能한 國內原料 資源과의 有機的 關聯下에서 形成되도록 模索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韓國의 人口와 資源에 關한 拙稿에서는 以上과 같은 問題意識에 立脚하여 國內에 있어서의

自然資源의 賦存狀態와 科學技術水準 그리고 그 開發이 沈滯 또는 促進되어온 要因을 歷史的으로 考證하고 그 開發의 當爲性 및 可能性을 具體的, 實證的으로 追求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諸問題는 그 性質上 複雜多端한 各種의 與件과 無限한 可變性을 지니는 自然 및 社會現象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므로 擧證의 未備 또는 誤謬는 勿論 論述의 幼稚를 免치 못하였다. 斯界 諸賢의 敎示와 叱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II. 資源問題

資源(Resources)은 一般的으로 土地, 森林, 水力, 鑛物埋藏, 漁場 및 人口를 包括하거니와 Woytinsky①에 의하면 自然資源은 農業資源, 森林資源, 鑛物資源, 에네르기資源, 水資源을 包含시키며 人的資源을 勞動力의 量 그 産業別構成, 國家別 및 地域別의 差異, 勞動時間 등으로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資源은 勞動過程을 構成하는 모든 要素(단 工業이나 機械 또는 流通過程은 除外)를 包括하며 이 限에 있어서는 막연한 그리고 自然科學 내지 商品學의 對象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見地에서라면 地理的 環境과 生産方法과의 經濟學的 範疇를 抹殺하고 法則的 把握 내지 科學的 槪念構成을 전혀 不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資本主義 生産方法下에서는 自然的 富源의 略奪과 濫獲이 特徵的이라고는 하나 木材生産物이나 水産物의 捕獲은 植林이나 一定期間의 禁漁에 의하여 그 補給이 可能한 것이며 또한 에네르기의 利用은 그 自身 工業의 發展을 前提로 한다. 그러나 鑛産物의 生産은 窮極에 있어서는 自然的인 埋藏量에 依存하는 것이니 여기에 소위 資源을 地下資源 내지 鑛山物에 限定하는 理由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에서 例컨대 人造石油나 鑛山物의 代替品에 의하여 經濟的 獨占이 무너진다고는 하나 廢鑛이나 枯渴로 인하여 生産의 限度가 規定되는 것이다.

여기에 狹意의 資源으로서의 地下資源 特히 鑛物資源에 관하여는 商品學的, 地質學的, 自然科學的 文獻이 過多한데 反하여 그 經濟學的 文獻은 過少하다고 Zimmermann은 指摘한 것이다.②

이와같은 事情은 林業, 漁業 등에 對하여서도 妥當하는 것이며 資本主義 生産方法下에서는 이러한 産業部門은 무수한 小生産者와는 다른 一般的으로 獨占體에 의하여 最終的으로 支配되고 있거니와 이와같은 獨占體가 더욱 더 猛威를 떨치기 시작하게 되면 生産物의 所有의 私的 性格에도 不拘하고 生産의 社會的 性格이 심하게 되는 結果 生産一般은 의식적으로 永遠的인 것으로 보이게 되며 따라서 資源은 生産方法에서 抽象된 資源一般이 되어서 그 限에 있어

註 ① W. S. Woytinsky & E. S. Woytinsky; World Population and production, 1953.
② E. W. Zimmermann: World Resources and industries, 1953, p. 433.

서는 自然科學的인 研究로서의 對象이 支配的인 것으로 되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社會生活의 基礎는 物質的 財貨의 生產에 있거니와 오늘날 그 生產物의 交換過程은 이러한 商品을 生產하는 諸國民經濟間의 國際的 分業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 前提는 한편은 自然的 前提로서 여러가지 生產的 有機體가 生活하는 自然的 地理的 環境의 相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른 편은 社會的 前提로서 文化水準, 經濟的 構造, 生產力의 發展程度등의 相異에서 形成되는 것이다. 「生產에 있어서 따라서 또 商業이나 交通에 있어서도 重要한 自然的 條件은 거의 不變的이라고 看做되고 있는데 反하여 文化의 發展段階는 可變的인 것이나 이것도 生產 其他에 있어서 또한 重要한 것이다.」③ 그러므로 이 두가지 要因의 併合作用만이 經濟生活의 諸事實의 發現을 促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考察한 경우 資源은 첫째로 天然的으로 附與된 것으로써 地球上에는 이것이 均等하게 分布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不均等性 分布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資源을 에워싸고 그 獲得을 위한 國際間의 政治的 또는 經濟的 紛爭은 終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資源은 單純한 埋藏物도 아니니 地殼에 있어서 諸金屬의 埋藏量은 〈알루미늄〉이 가장 많고 鐵이 그 다음이며 3位, 4位가 〈닉켈〉과 銅의 차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人類는 第一먼저 靑銅을 다음에 鐵을 그리고 近代에야 겨우 〈알루미늄〉을 抽出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埋藏量으로써 附與된 것이 결코 資源이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自然 地理的 槪念이 아니라는 것을 意味한다. 그렇다고 하여 資源의 槪念은 單純한 技術的 槪念도 아니다. 海水中에는 극히 微分量의 金이 包含되어 있으며 電氣分解에 의하여 이것을 採取하는 것도 技術的으로는 可能하다. 그러나 이 方法은 莫大한 經費를 要함으로 技術的으로는 可能하더라도 經濟的으로는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技術的 方法이 資源을 形成하는데 있어서 一般的으로는 意義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海水中의 金을 技術的으로 採取할 수 있다는 것은 天然的으로 賦與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側面으로 表現한 데 不過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意義를 附與하는 것은 技術 그것이 아니라 그 技術을 前提條件으로 하는 經濟的 條件인 것이다. 그러므로 資源은 무엇보다도 經濟的 條件으로서의 經濟機構에 制約되는 것이다. 따라서 同一한 自然的 技術的 條件下에 있으면서 時代와 場所를 달리함에 따라 資源이 될 수도 있고 或은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源의 開發은 우선 自然的으로 賦與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技術的으로 可能하여야 하고 그리고 끝으로 經濟的 條件과 符合되어야 한다.

그런데 經濟的 條件으로서의 經濟機構는 具體的으로는 항상 地域的 또는 社會的인 關聯 내지 類型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이 限에 있어서 資源은 經濟地理的으로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註 ③ Ernst Frisirich; Geographis des Welthandels und Weltverkehrs, 1911.

III. 人口와 資源問題

人類의 生活과 文化의 基盤이 되는 地球의 空間과 資源에는 限定이 있다. 이 空間과 資源中에서 그 一部는 人類의 物質的 欲望을 充足시키는 데 割當한다지만 보다 더 窮極的인 欲望의 充足 즉 人間의 손을 대지 않은 自然狀態의 아름다운 景觀을 감상하며 〈레크리에이션〉과 旅行을 즐기고 싶은 欲望을 充足시키고 또한 人間의 各種 文化 및 過去의 業蹟을 말하는 碑石과 古代의 偉觀을 保存하기 위하여서도 그 一部를 남겨 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急速度의 人口增加로 말미암아 이미 都市들은 그 스스로의 存在目的을 짓밟기 始作하며 不便함과 〈노이로제〉를 자아내고 數百萬 人口로 하여금 自然과의 眞情한 接觸을 갖거나 그들이 自然과 一體를 이룬다는 觀念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을 만큼 必要以上으로 肥大化하였다. 世界에서 比較的 人口密度가 낮은 地域에 있어서도 空地는 縮少一路에 있고 自然은 무서운 規模로 유린되고 있다. 소박한 林野生活은 자취를 감추고 森林은 伐採되었으며 山間은 水力發電과 鐵道工事로 상처투성이가 되는 同時에 空地는 道路와 飛行場建設로 원래의 모습을 벗어가고 있다.

人口의 壓力은 또한 大量生産된 商品의 洪水가 世界의 방방곡곡을 휩쓸게 하는 가운데 各民族의 고유한 文化를 퇴색시키며 傳統的 藝術과 工藝를 破壞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도 오늘날 郊外로 향하여 都市가 膨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統制하느냐가 問題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都市住宅의 問題뿐만 아니라 軍事施設도 空港도 道路도 그리고 또 工場도 擴張一路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土地利用에 關聯된 이러한 紛爭을 合理的으로 解決할 수 있으며 또한 農地의 生産力이 低下되었으며 木材의 需給이 不均衡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農産物 生産을 또는 木材의 生産을 增加할 수 있을 것인가.

特히 最近 顯著하게 된 것은 工業用水의 不足이며 水質 汚濁防止의 問題로서 여기에도 用水利用의 競合과 磨擦이 深刻하여 가고 있다. 또 工業用 原料로서의 金屬 其他의 鑛物도 不足하고 그 價格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生産을 增大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緊急을 要하는 問題로 되어 있으며 또 이것은 法制나 稅制上에도 本來의 問題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까지 論議하게 되었다. 〈에네르기〉 供給의 將來에도 不安이 있으며 價格이 높아지지나 않을까 하는 念慮와 〈에네르기〉賦存量과 生産量 그 利用 方法과 保全에 대하여서도 더욱 檢討를 加하여야 할 問題도 일어나고 있다. 國內 原料의 不足이나 價格의 上昇으로 輸入이 增加되고 있으니 今日의 諸制度下에서 이것을 繼續하고 擴大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問題이다.

美國과 같이 天然資源이 豊富한 나라에서도 現在 이와같은 問題가 있다는 것이 指摘되어서 그 解決에 어떠한 端緖라도 求할 수 있지나 않을까 하여 "將來의 資源에 관한 世紀 中間會議"

에서는 政府關係者를 비롯하여 大學敎授 科學者 技術者 및 産業人 그리고 勞動組合의 幹部를 加하여 前記의 問題를 다음과 같이 討議한 것이다.

美國은 오늘날 아직도 방대한 天然資源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과 같은 消費傾向과 將來의 需要의 增加를 考慮하면 供給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價格은 어떻게 될 것인가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또 將來의 人口와 國民生産은 어떻게 될 것이며 國民經濟의 變貌는 資源利用의 形式이라든가 그 量에 어떻게 反映될 것인가. 다시 이러한 天然資源의 需要의 增加는 그 限界點에 到達하여 우리가 期待하는 經濟의 發展을 저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는 가령 우리가 天然資源의 不足限界를 豫測할 수 있는 것 만큼 自國을 爲始하여 各國의 需要와 資源을 알 수 있는 것인가가 內容이었다. 또 科學과 技術은 새로운 原料를 開發하며 이것을 獲得하기 위한 새로운 方法과 이것을 더 잘 利用하는 方法이 創出을 可能하게 할 것인가. 다음 半世紀에는 現在까지 不足하였던 諸國의 原料에 대한 熱望을 어느 程度 充足시켜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地球上의 다른 部分의 經濟의 改善은 한 國家의 資源과 經濟上의 地位에 어떠한 影響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動態는 重大한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니 資源의 世界的인 開發을 長期的으로 볼적에 國際經濟의 發展과 步調를 맞추어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其他 諸國의 需要의 增加는 今日과 같은 原料의 配分을 繼續 許容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長距離輸送은 安全保障과 어떠한 關係를 가지게 될 것인가가 關心事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將來의 需要라고 하면 그 豫想은 그렇게 容易한 것이 아니다. 人口增加, 國民生産의 構成, 所得의 配分, 生活水準 科學技術의 進展에 따르는 新製品의 生産 등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將來의 原料인 輸入은 左右될 것이다. 戰爭과 平和 그리고 世界 各國의 經濟事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 또한 큰 影響을 받는다.

豫想은 다만 推測에 不過한 것이나 問題를 豫見하는데 있어서 困難을 회피하는데 必要한 것이며 그러한 目標는 資源의 可能한 將來의 利用에 있어서의 契機가 될 것이다. 需要의 側面에서 보더라도 確實히 人口의 增加, 經濟活動의 上昇, 今後의 改革과 個人 및 國家의 生活水準의 質的 上昇은 함께 關聯되어 오늘날의 需要를 훨씬 넘어서 世界의 資源에 重壓을 加할 것이다. 그런데 이 需要가 어느 程度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만 經濟擴大의 豫想에 의할 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決定, 外國에 대한 資本投下의 風潮, 所得配分에 관한 經濟的 方策, 世界各國間의 將來의 關係라는 것에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原料供給의 展望도 또한 容易한 問題가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國內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管理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또 어떠한 새로운 資源을 發見하느냐. 다시 이러한 發見에 또는 그 精練에 어떠한 새로운 改良을 加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將來에 어느 程度 輸入할 수 있겠는가에 더 나아가서는 管理의 効率이라든

가 經濟의 構造 그리고 發明이나 技術에 따르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또 勞動과 原料로서 可能한 限 最低의 價格으로 製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要컨대 生產性을 높이면서 生活水準의 上昇을 繼續 維持하여 가겠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資源의 濫用이라든가 誤用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대하여 技術의 進步가 繼續 發展을 繼續한다고 하면 今日 使用되고 있는 資源에 대하여 그 大部分이 고갈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供給의 展望은 現在 당하고 있는 것보다 或 好轉될지도 모르며 或은 現在까지 經濟的인 자극이라 할까 壓力이 없었기 때문에 發展하지 않았거나 또는 使用되지 않았던 것이 不足하다는 것에서 展望을 하게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原料에 대한 需要와 供給은 이와 같은 問題에 支配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要因에는 相反되는 것이 많으므로 需要라든가 供給의 豫想은 容易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人口와 資源의 均衡을 維持한다는 試圖는 도저히 增加하여 오는 危險에 대하여 아무 所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한편 人口는 어느 時期에 到達하면 停滯하지나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確實히 急激한 人口의 增加와 資源의 消耗는 해마다 繼續하여온 것이기는 하나 우리들의 近年의 實績에서 본다면 점차로 보다 넓은 强力한 資源利用의 基盤을 新機軸이 創出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今日 우리들이 使用하고 있는 것은 今日의 物理的 技術的인 그리고 經濟的인 條件에 의하여 制限되고 있는 것이며 條件이 變化하면 資源利用의 可能性도 또한 變化될 것이다.

IV. 韓國의 資源問題

1. 先進 工業國의 資源問題

美國 其他 經濟的으로 發展된 自由 諸國은 장래 더욱 多量의 原料輸入이 必要하게 된다는 것이다.④ 이것의 가장 有望한 供給源泉은 東南아시아, 中東,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等의 後進諸國이며 先進諸國이 이러한 地域의 原料生產의 擴大에 열중한 경우 그것이 經濟發展의 展望에 대하여 어떠한 結果를 招來할 것인가.

先進諸國 經濟의 動態的인 性格은 世界原料生產의 擴大에 강한 利害關心을 가지게 하거니와 이것은 防衛力을 考慮할 경우 특히 決定的인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原料供給 增大의 가장 좋은 源泉인 後進諸國의 渴求와 希望에 符合될 수 있는 全般的, 總合的인 經濟發展이 資源開發의 路線에 따라서 구하여지지 않는 限 多量으로 그리고 착실하게 그 增加를 期待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여기에 先進國이 後進國의 經濟發展 그 自體에 관하여 갖게되는 또 하나의 큰 動機가 있는 것이다.⑤

註 ④ President's Materials Policy Commission, Resources for Freedom, Washington, U. S. Govt., Printing off., 1962.

⑤ E. Staloy, The Futur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1954. 林松祐次 譯, 同書「後進國의 將來」, 日本外政學會, 1957, p. 67.

例컨대 美國의 資源不足(原料生產量의 消費量에 대한 不足)은 1950年에 9%이었으나 중요한 金屬分野에 있어서의 不足은 더욱 큰 것이었으며 1975年에는 消費率을 이대로 유지하더라도 50% 내지 20%를 增加시키는 동시에 그것의 약 20%는 輸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西歐의 需要를 고려할 경우 1975年까지에는 거의 2分의 1이 增加되는 것으로 豫想되며, 加, 濠, 新 및 日의 需要增加는 그 以上으로 된다는 것이다. 比率로 보아서 後進國의 需要가 특히 增加한 것이로되 그 量은 工業化된 國家에서 使用되는 全量에 비교한다면 매우 적은 것이다.⑥

그런데 美國의 工業原料에 있어서의 後進國에 대한 依存性에 관하여 보면 美國은 世界人口의 약 6%와 世界面積의 겨우 7%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 데도 불구하고 全世界 工業生產의 거의 折半을 담당하고 있거니와 基礎的인 15種의 鑛物에 있어서는 世界年產額의 3分의 1을 生產하는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가령 美國 自體의 資源供給力에만 依存한다면 美國은 도저히 世界 工業의 折半가량의 生產者로서의 地位를 維持할 수는 없을 것이다.⑦

여기에 美國이나 다른 工業國 또는 현재 工業化하려는 諸國은 어디에서 그 成長에 不可缺한 原料의 追加分(특히 鑛物原料)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가장 필요한 資源은 近東, 東南아시아, 아프리카 및 南美 즉 後進諸國에 存在한다고 하였거니와 世界의 이러한 地域에 있어서의 重要鑛物의 旣知 또는 推定의 埋藏量은 적어도 다음 25年間 거의 혹은 전혀 實質生產量의 增加없이 自由世界의 要求에 충분히 응할 수 있을 만큼 많기도 하며 또한 單位도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展望은 이러한 地域이 先進諸國에 있어서 接近하기 쉬운 것이며 또한 그 地域의 諸 條件이 工業的으로 보다 進步된 諸國으로 부터 導入되어야 할 大量의 資本이라든가 技術이나 設備 等을 誘引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不適當하지 않은 限에서만 可能하게 될 것이다.

다시 資源對策諮問委員會에서 報告하기를 한편 工業的으로 進步된 國家는 종래보다도 더욱 未開發의 資源에 대한 그 要求를 充足시키어 줄 것을 要請하며 다른 한편 後進諸國은 그 經濟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國民의 生活條件을 改善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向上을 期待하는 것이니 이러한 一聯의 諸 事情은 相互協助的이라면 後進國에 있어서도 또한 自由世界 全體에 있어서도 큰 利益을 招來할 것이다. 특히 先進國은 後進國에 대하여 經濟的 成長을 위한 設備를 輸出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後進國은 外貨獲得의 풍부한 源泉으로써 資源輸出을 擴張할 수 있으며 또한 資本 및 經營技術의 導入에 의하여 그 經濟成長을 加速化하여 그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도 할 것이다.⑧

註 ⑥ S. Lilley 著, 大林伊藤 譯『人關과 機械의 歷史』, pp. 273~274. 譯著 註項目에서.
⑦ Albert Memmi 著, 渡邊 譯『植民地トソノ心理的風土』, p. 172.
⑧ 前揭書, 註 ⑥ p. 12, p. 59.

美國을 위시한 先進諸國에서는 原料供給增强을 위하여 다른 潛在的인 資源을 發見하고 있거니와 그 새로운 技術的 發展은 더욱이 原料供給에 있어서의 必要한 增大가 後進地域의 諸條件의 惡化로 말미암아 高價의 費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代替產業이 進展되어서 종래보다도 더욱 優良 廉價의 것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一般으로 必要한 原料의 缺乏과 高價格은 불충분한 代用品의 使用으로 되기 쉬움으로 말미암아 原料의 費用을 높게하는 많은 事態가 累積되면 그 結果 工業先進國에 있어서의 生產性과 生活水準의 보다 以上의 發展을 방해하는 作用을 惹起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先進諸國의 資源에 대한 要求와 後進國의 一般的 發展에 대한 要求와의 雙方을 充足시키려는 데에 後進國과 큰 經濟的인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低開發國의 資源問題

人口密度나 資源의 풍요에 의하여 한 國家, 한 地域의 經濟發展을 決定할 수는 없는 것이니 人口密度가 큰 데도 社會機構가 發展된 곳도 있으며 反對로 人口密度가 적은 데도 그것이 發展된 곳이 있다.⑨ 이러한 意味에서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大部分의 後進國은 「貧困한 者가 居住하는 풍요한 土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資源에는 惠擇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資源은 그 開發에 있어서 資本主義 生產下에서는 利潤의 追求와 合致되며 植民地 從屬國에서는 본래라면 正常的인 經濟發展이 可能한데도 不拘하고 先進 資本主義 工業國의 原料供給을 위한 附屬物이 되는 동시에 外國獨占體, 自國의 大企業, 官僚, 매판자본가 등에 의하여 많은 有用한 資源이 放置된 대로 있는 것이다. 또한 資本主義 世界 經濟體制下에서는 모든 資源의 開發過程이 동시에 그 荒廢의 過程이라고도 하나 일단 開發된 資源은 素朴하게 荒廢되는 것이 아니라 一時的인 彌縫策 즉 植民主義的 經濟政策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後進國에 있어서의 從來의 單一生產 存續의 要因이기도 한 것이다.⑩

TVA는 소위 New Deal 政策의 產物로써 美國民主主義의 훌륭한 成果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TVA의 効果는 Tennesse 江 流域의 洪水의 完全한 防止, 耕地의 肥沃化 그리고 安價豊富한 電力에 의한 그 地方一帶의 住民福祉와 產業繁榮에 대한 直接的인 것만이 아니라 私的 企業의 獨占利潤없이 電氣가 合理的으로 生產된 경우에는 얼마나 低廉한 價格으로 되는가를 實證하였으며 이제까지 電氣會社의 適正料金이라고 하는 것이 高率의 獨占利潤을 包含한 얼마나 높은 獨占價格인가를 指摘하여서 一般으로 電氣料金 引下에 현저한 効果를 招來한 것이다.

그러나 美國에 있어서는 이것이 最初이며 最後로서 이것에 뒤따를 CVA (Colorado江 開發)나 MVA (Missourie江 開發)의 計劃이 獨占資本으로부터의 壓力과 政府의 不協力으로 마침내 紙上

註 ⑨ 비토베르 著, 世界經濟地理, 前揭書, p. 34.
⑩ 小林 新, 經濟地理學序說, 日本評論新社, 1960, pp. 112~113.

計劃으로 끝난 것에 注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⑪

資本主義 本國에 있어서도 이와 같거니와 하물며 後進國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이러한 事業에 의하여 많은 消費者나 農民大衆에게 利益되는 것이 많더라도 獨占體나 其他가 獲得하는 利益에 比較한다면 거의 皆無와 다름없는 것이며 資本主義 國家의 本土內에 있어서도 이러한 僞裝이 행하여지거니와 더욱이 後進國에서는 보다 拙劣한 方法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例컨대 이러한 地域에서 행하여지는 農產物, 原料品 등의 重要產物의 國有化는 國家獨占 資本主義의 一形態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資本主義 世界經濟體制下에서는 後進國을 資本主義 大工業國의 資源의 單一生產地域(日帝下의 韓國에 있어서 食糧植民地로서의 米穀單一生產도 그 例外는 아니다)으로 變化하여 그것이 枯渴할 때까지 收奪하는 것 즉 世界分業에 있어서의 部分的 破壞過程을 意味하며 또한 그것은 資源 그 自體의 生產過程이 동시에 破壞過程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收奪하는 工業國에 있어 戰爭을 위하여 使用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Albert Memmi로 하여금 現代의 經濟的 植民地化의 營爲는 그 自身中에 조만간 스스로를 破壞시키는 矛盾을 內包하고 있었다고 하게 한 것이다.⑫ 여기에 後進國만의 資源만이 資源의 기형적인 供給者가 되었으며 資本主義 生產方法에서 造成되는 恐怖의 波及地域으로 化한 것이다.

3. 韓國의 資源問題

이·와·비토베르는 그의 著書『諸外國의 經濟地理』의 韓國項目에서 韓國은 天然資源의 種類가 매우 豊富하다고 前提하면서 韓國의 地下에는 各種의 有用鑛物의 埋藏量이 豊富하다고 하였다. 溪流와 폭포를 거치어 흐르는 山間의 河川은 방대한 包藏水力을 지니고 있으며 平野의 肥沃한 土壤과 温暖한 氣温을 가진 氣候의 영향으로 귀중한 温帶性 農產物의 收穫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周圍의 海域은 魚族과 여러가지의 해서동식물로 충만되어 있다. 面積이 이렇게 작으면서 이와 같이 外樣豊富한 自然條件을 가진 國家는 또다시 드문 것이다. (베·자이치코프의 韓國에서)⑬

韓國의 工業은 日帝下에서 一面的으로 發達하였으며 末期에는 軍需工業基地의 擴大에 狂奔하고 있었으므로 韓國에 有用鑛物(鐵鑛, 金銅, 亞鉛, 알미늄, 마그네슘 등)의 探掘地를 組織하고 冶金 및 化學工業을 包含한 各種 工場을 建設하였거니와 동시에 機械製作工業은 거의 存在하지 않았으며 國民消費物資의 生產은 不充分하였다. 韓國에서 開發된 資源은 日本의 軍事經濟에 充當되었다.⑭

註 ⑪ S. Lilley著, 小林伊藤,『人間과 機械의 歷史』, pp. 273~276. 譯著 註項目에서.
⑫ Albert Memmi著, 渡邊 譯,『植民地トソノ心理的風土』, p. 172.
⑬ 蘇聯研究者協會譯 이·와·비토베르,『世界經濟地理』, 青木書店, 1956, p. 290.
⑭ 前揭書, p. 291.

南北韓 사이에는 資源性格에 本質的인 差異가 있으니 南韓에는 人口조밀한 主要 農業地帶가 있으며 착실한 基幹産業이 建設中에 있다. 北韓에는 山岳이 많으며 沿岸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農業에 適合하지 않다. 그러나 이 地方에는 主要한 水力, 鑛業 및 林産資源이 있으며 主要한 重工業이 이 地方에도 存在한다.[15]

그런데 一般的으로 韓國工業이 發展하지 못한 主要原因은 資本不足과 原料缺乏, 協力不足 및 技術不足으로 要約할 수 있겠으나 특히 그중에서도 良質의 廉價한 原料를 豊富하게 供給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工業發展의 基本要素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動力資源을 除外한 工業原料는 鑛物資源을 中心으로 하는 無機質 原料와 農林 및 水産資源을 內容으로 하는 有機質原料로 大別되거니와 韓國의 鑛物資源은 資源 그 自體의 貧弱보다는 國內 工業施設의 未備로 工業原料로 使用되지 못하고 大部分이 輸出되고 있으며, 有機質 原料는 다소의 國內供給이 可能함에도 불구하고 施設의 未備로 國內需要의 거의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바 이러한 工業需給의 合理的인 改善없이 韓國工業의 發展은 期待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16]

여기에 오늘날 韓國에 있어서의 資源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特質을 指摘한다면 다음과 같다.

(1) 絶對的 埋藏量이 全般的 過少性

(2) 多種 多樣性(특히 北韓에 있어서)

(3) 地理的 分布의 不均等性(특히 南韓에 있어서)

(4) 不安定性과 그 周期的 再編成의 必要(특히 燃料動力資源에 있어서)

(5) 人的 資源에 의한 補完性(이것 또한 燃料動力資源에 있어서)

(1) 및 (2)에 대하여는 再論할 여지도 없으나 (3)의 地理的 分布의 不均等性에 대하여 말한다면 例컨대 無煙炭에 있어서는 太白山地區, 聞慶, 和順 등에 散在하고 있거니와 그것이 韓國産業의 中軸地域인 京仁 대구 釜山地帶로부터 隔絶되고 있으며 또 水力에 있어서도 東海(日本海)水系와 黃海水系와의 流量의 不均等, 다시 雨量의 季節的 不均等 또한 그것에 의한 利用可能性의 無條件的 低位라는 自然的 條件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水力에 있어서는 그 平均利用係數의 高率性이 利用可能係數의 低率性과 拮抗, 괴리의 關係에 놓여 있다) 鑛物資源에 있어서 國土의 兩斷이 地理的 分布의 不均等性을 더욱 激化시킨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4)의 不安定性과 그 周期的 改編의 必要는 특히 현저한 것이 있으니 燃料動力資源은 각각 蒸氣機關과 水力 〈터어빈〉의 出現을 契機로 하여 木炭에서 石炭으로, 石炭에서 白炭(水力)으로 移行하였다. 日帝戰時下에 있어서 石炭液化에 의거하는 液體燃料의 重要性이 擡頭하는데

註 ⑮ 前揭書, p. 291.

⑯ 白永燻, 韓國經濟와 工業化發展에 關한 硏究, 韓國生産性本部, 1963, p. 23.

따라서 韓國은 다시 水力에서 石炭으로 重點이 옮겨졌다. 解放後 이러한 狀態는 三轉하여 또 다시 水力으로 그리고 南韓에서는 重油와 石炭으로 轉換하면서 事變後에는 石炭과 白炭을 併用하기에 이르런 것이다. 近者 數十年間의 韓國은 실로 白炭과 黑炭 그리고 解放後에는 여기에 石油를 加하여 이 三者의 鬪爭속에서 經過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5)의 人的 資源에 의한 補完性은 例컨대 韓國은 人間勞動力, 日本은 電力, 英國은 石炭, 美國은 石油, 이와 같이 動力源으로서의 勞動力, 水力, 石炭, 石油가 어떠한 資本主義 發展의 諸段階를 象徵하는가를 想起한다면 여기에 현저한 대조적인 特徵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을 包含하여 過去 植民地로서의 原料國이라는 意識에는 一種의 恥辱(특히 日帝下의 韓國은 그러하였다)과 結付되어 있으니 그것은 植民地經濟 따라서 不平等한 劣等的인 國際地位를 聯想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을 비롯한 經濟的 後進諸國의 民衆은 이제야말로 새로운 抱負와 民族的인 主體意識에 의하여 國際的 地位의 平等化를 열열히 希望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은 政治的인 植民地主義에 反對하여 온 것과 同一하게 外國의 利益으로 말미암은 從屬的인 一切의 提携에 斷乎한 反對를 하고 있거니와 最近의 韓日會談問題도 이러한 實情에서 理解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原料에 대한 海外需要는 매우 不安定하거니와 韓國도 그 原料輸出에 대한 依存度를 引下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

여기에 原料生產에 基因되는 政治經濟的 不利의 大部分이 過度의 特化(overspecialization)의 結果이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⑰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 先進工業諸國이 韓國을 包含한 原料供給 諸國에 대하여 그러한 物資의 生產을 上昇시키면서 동시에 그 國內經濟의 均衡的인 發展을 援助할 경우 그리고 例컨대 相當量의 것인 동시에 용이하게 市場을 發見할 수 있는 原料資源을 가졌다는 有利한 立場에 있는 後進諸國 특히 韓國에 있어서의 重石과 같은 것은 그 好例이거니와 이것을 一般的인 經濟進步를 지탱하는 手段으로써 利用한다면 政治 其他의 側面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不利한 點은 상당히 縮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原料資源에 대한 國際的인 投資 및 貿易에 의한 큰 相互利益의 基盤이 形成된다고는 하나 韓國과 같은 新生獨立國家이며 동시에 原料 및 人的 資源供給國에서는 民族主體意識과 援助受容의 態勢確立 없이는 考慮할 問題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韓國에 있어서도 1, 2의 輸出用 原料生產만이 國民經濟의 一般的 經濟發展과 遊離되어서 不均衡的인 發展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것은 對內的 및 對外的으로 다 같이 惡影響을 미치게 하는 政治的 問題를 惹起시키는 것이다.

註 ⑰ U.N.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e, 『後進國의 輸出市場의 不安定性』, Instability in Export Market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1962 II. A.

또한 外國으로부터의 資本이나 技術은 工業諸國에 대한 輸出原料를 抽出하기 위하여 종종 近代的인 高度의 生産的 機構를 造成하였거니와 다른 한편 後進國經濟의 其他의 全部門은 傳統的인 慣習을 종래와 거의 다름없이 存續시키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畸行的 發展은 거의 輸入原料에 依存하는 特惠産業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第一로 特權이나 權力手段의 配分에 있어서의 旣存의 不平等을 深刻化시키는 傾向을 誘發시키며 第二로 原料産業의 畸行的인 發達은 通例이나 이러한 企業의 外國人經營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第三으로 輸出用 生産을 행하는 鑛山 등 企業體로서 部分的인 産業社會를 形成한다는 것은 勞動者集團을 形成하게 되거니와 完全히 近代的인 産業社會의 特徵인 均衡化 要因으로서의 온건한 中産階級은 여기에서는 缺如되는 것이다. 第四로 單一生産 내지 少數의 輸出用 原料部門以外에 거의 發展이 보잘 것 없는 경우에는 原料需要의 不安定性, 工業國에 있어서의 不況, 代用原料 및 合成品의 發明 其他의 技術的 變化로 말미암아 影響을 받기 쉬운 것이니 이러한 經濟的인 不安全性은 政治的인 危險을 현저히 擴大시키는 동시에 經濟的 災害가 發生된 경우에는 그 罪責이 外國商社 내지 그 代表하는 國家에 歸着된다. 第五로 畸行的인 發展은 安定된 民主主義的인 政府로서의 충분한 經濟的 基礎를 造成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原料輸出에 의하여 얻어진 巨額의 收入으로 어떠한 權力을 獲得하려는 少數人士에게는 큰 賞與가 걸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은 확실히 國民의 利益이 될 수 있는 發展을 指向하는 政治的인 進步가 이루어지는데 적합한 분위기는 아닌 것이다.

끝으로 韓國에 있어서의 原料生産의 增加로서 그 一般的 經濟發展을 促進시키는 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原料品의 生産 및 輸出이 均衡的인 一般的 發展을 促進시키는 데 必要한 設備 其他의 輸入項目을 代充할 수 있는 外換 및 國家歲入의 源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原料生産의 發展은 一般的으로 港灣, 鐵道, 道路, 發電施設 등 많은 施設이 必要하거니와 적당한 計劃化에 의하여 이러한 施設이 一般的 發展에도 도움이 되도록 配置 設計하여야 한다.

(3) 原料를 生産하며 加工하는 近代的 諸方法은 現地의 被雇傭者나 供給者 間에 機械技術이나 事業的, 組織的 能力의 進步의 必要를 助成시켜야 한다.

(4) 賃金支拂, 所要物品의 國內購入 및 國內에서의 特許料支拂 또는 原料産業으로부터의 配當金 등에 의하여 形成된 購買力 增大가 적당한 條件下에서 手工業, 農業, 商業의 國內的 發展을 자극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要컨대 韓國에 있어서는 그 原料資源이 一般的인 經濟發展에 이바지되는 形態로서 開發시키어야 하겠거니와 특히 鑛物과 같은 조만간 고갈될 資源의 輸出에서 獲得되는 歲入은 확실

하게 一般的 發展을 위한 綜合計劃中에 再投資하는 것이 賢明한 方策이다. 또한 중요한 原料資源으로써 國際政治上의 發言權이 附與된다면 海外로부터의 資本이나 技術援助의 獲得에 活用하여서 國內經濟의 非原料的 部門의 發展과 人間的 其他의 基礎的 實際의 改善을 促進시키는데 貢獻되어야 하겠다.⑱

V. 結 語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韓國은 아직도 食糧 내지 原料植民地로서의 象徵인 單一耕作形態를 根本的으로 改善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解放後부터의 對外依存體制의 强化로 인하여 外國原料에 의존하는 工業開發이라는 기형적인 國際分業關係를 形成하게 되었다. 여기에 問題가 되는 것은 技術的 意味에서의 國際分業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分業을 基盤으로 後進國에 不利한 交易條件을 强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國內產業의 內包的 發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이제 겨우 工業化段階에 들어서고 工業構造의 不均衡性을 그 自體의 모순으로 지니고 있는 한에 있어서 原料資源의 輸出과 그 과도한 輸入은 韓國經濟의 均衡的이며 內包的인 發展을 저해한다는 것으로는 동일한 內容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韓國의 資源開發이 工業開發과 無關係하지 않고 密接한 관련속에서 推進되어야 하겠다.⑲

그런데 여기에서 提起되는 問題는 현실적으로 開放體制를 指向하는 條件下에서 이러한 資源의 開發方式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開放經濟體制에의 深化에 따른 自由化의 範圍가 擴大됨에 따른 國際競爭力 强化에 있어서 優位에 설 수 있는 條件의 하나는 各種의 資源面과 地理的인 天然惠澤이고 다른 하나는 人爲的인 方法에 의한 產業基盤의 擴充 및 產業開發을 包含한 工業의 高度化 發展이라 하겠다. 그런데 大體로 低開發國家에서는 前者의 惠澤에 의해서 不利한 競爭與件을 어느程度 〈카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一部를 除外하고는 工業原料로서의 資源의 賦存度라든가 原料產業의 發展度가 落後되고 있어 源泉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있다. 이에 따라 工業化 發展을 期하자면 生產機械設置 또는 技術의 導入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特히 原料의 海外市場에의 依存度가 높아서 外換需要가 더욱 擴大되게 되어 있다. 지난 第1次 經濟開發計劃의 遂行에 있어 차질을 가져와 計劃內容을 補完하여 輸出振興에 重點을 두게된 것도 위와 같은 原因에 依한 國際收支 逆調의 擴大에도 基因한 것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경향은 非單 우리나라에 限한 것이 아니라 大部分 後進國의 共通的인 問題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輸出產業이나 輸入代替產業할 것 없이 國內에 工業을 移植한다는

註 ⑱ 前揭書, 後進國의 將來, PP. 402~417.
⑲ 韓國經濟問題研究會, 韓國經濟研究, 第2卷 第3號, 1967, 7. P. 29.

成果는 外貨獲得 및 節約率이 相對的으로 낮음으로써 國際收支 改善에 크게 寄與하지 못함은 勿論 他產業에의 聯關波及效果가 期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結果的으로 工業化 發展의 窮極目標인 雇傭 및 所得增進 成果를 半減하게 하고 있다.

原料의 輸入依存度 深化는 以上과 같은 否定的인 要因外에 該原料의 需給차질과 함께 製品의 價格面에서의 國際競爭力에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즉 原料를 지나치게 外國에 依存할 경우 貿易自由化의 幅이 넓어짐에 따른 競爭의 激化가 該原料의 量的인 面에서의 供給을 制限받을 憂慮가 있음도 勿論이다. 이와 더불어 輸入原料의 價格形成에 있어서도 運送費라든가 諸般 輸入에 따른 經費가 包含됨으로써 原料生產國에 比해 製品原價에의 壓迫이 크겠지만 特히 國內流通秩序의 紊亂을 獨·寡占形態로서의 價格操作으로 實際 〈메이커〉의 原料購入은 輸入商品價格을 훨씬 초과하여 形成되는 國內販賣價格에 의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製品의 〈코스트〉를 올림으로써 國際競爭力을 强化시키고 있다.

勿論 輸出이나 內需產業에 있어 國內原料의 開發에 依한 自給可能한 業種도 많이 있다. 그러나 化學纖維原料, 木材, 고무類, 油類, 鐵材 및 特殊化學原料 등은 거의 輸入에 依存하여 왔고 앞으로도 繼續 依存치 않을 수 없는 部門들이다. 이에 따라 自由化 擴大에 따른 國際競爭力 强化에 있어서 提起되는 問題點은 어떻게 해서 原料開發 내지는 代替를 위한 基礎產業을 發展시켜 이의 輸入依存度를 낮추는 것이고 이와 함께 流通 部門에서의 價格操作에 의한 輸入原料의 價格高防止를 包含하는 流通體系를 正常化시키므로서 國內資源의 不足에서 오는 否定要因을 除去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모든 高密度 諸國 등은 國土의 大部分을 開發利用하고 있음과 同時에 資本의 豊足과 資源開發의 進陟에 의한 工業化 發展으로 過剩人口를 勞動力으로 包攝시킬 수 있어서 人口의 壓力보다도 오히려 勞動力 不足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反하여 우리나라는 첫째 狹少한 耕作地나마 農業生產性의 低位로 食糧自給을 할 수 없어서 每年 導入外穀에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 工業發展이 뒤떨어져 非公式 統計에 의하면 現在 完全失業者만도 約 60餘萬名을 헤아린데다가 農村, 都市의 潛在失業人口는 數百萬에 達하여 失業者 및 貧民救護라는 社會問題까지 제기되고 있다.

敎育問題에 있어서도 義務敎育을 위한 욱심한 敎室不足 特히 高調된 敎育熱은 每年 新學期에는 總通貨量의 3分의 1이 學校敎育 機關에 集中함으로써 經濟發展에 基本原動力이 될 資本形成을 저해하는 一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韓國經濟의 展望에 있어서 質이 優秀한 豊富한 勞動力은 經濟開發을 可能하게 하는 希望的인 요인이기도 하나 하여간 人口過剩問題의 解決은 工業化發展으로 雇傭率을 높이는 方法이 가장 合理的이고 理想的이다. 人口增加가 經濟成長에 否定的인 要素가 된다는 것은 勞動, 資本, 資源 등 生產要素가운데 勞動만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이고 先進國에서의 경험에 의하여도 資本蓄積이 急進展될 때 過剩人口는 오

히려 經濟發展을 促進시킨다는 것은 이미 言及된 바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經濟與件下에서 資本設備의 急速한 增大가 기대할 수 없을 때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經濟成長을 期한다 하더라도 每年 2.4%의 人口增加率을 顯著히 능가하는 成果를 걷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特히 食糧 내지 原料를 人口增加와 같은 幾何級數式으로 增產한다는 것도 힘에 겨운 일이다. 따라서 工業化에 의한 雇傭增大라는 積極的인 解決策과 함께 人口增加를 抑制하는 消極的인 解決方案도 아울러 강구치 않을 수 없다.

이의 具體的인 方策으로써 過去 人口가 過剩된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여 왔던 移民 또는 勞動力 輸出도 그 하나의 方法이다. 現在 南美를 비롯한 몇個 地域에 대하여 國策的으로 移民을 實施하고 있으나 輸送費와 定着資金 등 많은 資金이 所要된 데 比하여 또한 勞動力 輸出로서 西獨에 鑛山勞動者와 看護員을 派遣하였지만 그 量은 過剩人口問題의 해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小規模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가 가장 注力하고 重點的으로 實施되어야 할 것이 다름아닌 人口의 自然增加抑制를 위한 產兒制限 즉 家族計劃의 普及推進이다. 元來 家族計劃은 經濟政策領域外의 社會問題이겠으나 오늘날 우리나라 現實은 爆發的인 人口增加의 抑制는 다른 側面에서의 經濟成長에 寄與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窮極的으로는 經濟政策의 一環으로 看做될 수도 있는 것이다.

現在 執行中에 있는 第2次 5個年計劃에도 現 人口成長率 2.4%에서 目標年度에는 2.0%로 낮추게 하기 위한 家族計劃事業을 적지 않은 資金과 要員을 確保하여 활발히 推進中에 있거니와 앞으로 어느 部門에 못지 않게 이의 成敗 與否가 韓國經濟의 展望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간 韓國의 開放體制는 根本的으로 海外市場의 擴大에 基本目的이 있거니와 그것이 現實化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經濟構造의 自立的 基盤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요컨대 資源開發方式에 의한 產業 構造의 改編없이는 經濟의 自由化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開放體制에 의한 國民經濟의 發展도 外資導入의 만성적인 惡循環으로 말미암은 피상적인 擴大再生產의 形態를 止揚시키지 않고서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